



🌸 옛이야기 🌸  
은혜 깊은 구렁이

**나이** · 유아(3~5세)

**주제** · 목표: 다른 사람을 돕는 마음과 은혜에 보답하는 태도를 기른다.  
· 주제: 은혜

**핵심어** · 은혜, 할아버지, 구렁이, 약초, 홍수, 사또 부인

**한국 문화** · 목표: 생활 속에 유용한 약초와 그 활용에 대해 이해한다.  
· 요소: 약초

**한국어** · 목표: 명사 '은혜'의 뜻을 배운다.  
· 단어: 은혜  
· 표현: 은혜를 입다, 은혜를 갚다.



## 🌸 구연활동내용



### 인사 나누기

배꼽 손! 인사!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에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줄 'OOO, 아름다운 이야기할머니' 예요.



### 제목 알리기

오늘 할머니가 들려줄 이야기는, 제목 나와라 똑딱! '은혜 깊은 구렁이' 이야기예요.

여러분, 친구에게 도움을 받은 적이 있나요? 그럴 때 여러분은 그 친구에게 어떻게 하나요? 옛날에 마음씨 착한 할아버지가 위험에 빠진 구렁이를 도와주었어요. 그러자 그 구렁이가 할아버지에게 은혜를 갚았다고 해요. 구렁이가 어떻게 할아버지에게 보답했는지 이야기 들어 볼까요?



### 이야기 시작 노래 부르기

'은혜 깊은 구렁이' 이야기 속으로 출발!

🎤 **하나 둘 셋 넷! 이야기 시작! 우리 모두 신나게 잘 들어 보아요.**

👂 **귀는 쫑긋 ✨ 눈은 반짝 준비됐나요? 하나 둘 셋 넷! 출발합니다. 빵빵!** 🔊



## 🌸 이야기 들려주기

---

옛날 어느 산골에 마음씨 착한 할아버지가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여름날 비가 너무 많이 내려 큰 홍수가 났지요. 다행히 할아버지의 집은 산의 중간쯤에 있어 괜찮았어요. 하지만 산 아래에 있는 집들은 무너지고, 가축들은 모두 떠내려갔어요.

“저런, 이를 어쩌나. 모두 떠내려가네.”

그때였어요. 할아버지 집 앞 개울에 구렁이 한 마리가 똥똥 떠내려가는 게 아니겠어요?

“아니, 저건 구렁이잖아? 아이고, 불쌍하기도 하지. 안 되겠다. 내가 구해 줘야지.”

원래는 구렁이를 보기만 해도 무서워서 고개를 돌리던 할아버지였어요. 하지만 물에 떠내려가는 구렁이를 차마 모른 척할 수는 없었지요. 할아버지는 지팡이를 물속에 넣었어요.

“자, 어서어서 나오너라.”

구렁이는 지팡이를 친친 감고 물 밖으로 나왔어요.

며칠 후, 할아버지가 밭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구렁이가 스르륵 다가오더니, 할아버지 종아리를 짝 물고 가 버리는 거예요. 구렁이에게 물린 할아버지는 너무 어이가 없고, 미운 마음이 들어 화가 났어요.



## ❁ 이야기 들려주기

“아니, 저 구렁이가 어떻게 나를 물 수가 있지? 죽을 뻔한 것을 내가 구해 주었는데 말이야. 은혜를 원수로 갚는 고약한 구렁이 같으니라고…….”

구렁이에게 물린 상처는 금방 부풀어 올랐어요.

‘아이고, 이젠 죽었구나!’

큰일 났어요. 할아버지의 상처가 점점 심해졌어요.

그때, 구렁이가 이름 모를 풀을 입에 물고 다시 나타났어요. 구렁이는 할아버지 상처에 풀을 붙여 주고는 스르륵 사라졌지요. 참 신기하게도 상처는 금방 다 나았어요.

“허 참, 이상한 구렁이일세. 다치게 할 때는 언제고, 풀을 가져와 상처를 치료해 주다니…….”

할아버지는 별 이상한 일도 다 있다고 생각하며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할아버지는 나무를 팔러 장에 갔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모여 웅성거리고 있지 뭐예요. 궁금해진 할아버지가 마을 사람에게 물었어요.

“여보게, 무슨 일인가?”

“예, 얼마 전에 사또 나리의 부인이 구렁이에게 물렸답니다. 금방이라도 죽을 것 같은데, 어떤 약으로 치료해도 소용이 없다지 뭐예요.”



## ❁ 이야기 들려주기

---

“아이고, 이를 어쩌나?”

“그래서 사또 나리 부인을 낫게 하는 사람에게 큰 상을 내린다고 합니다.”

순간 할아버지는 며칠 전 구렁이가 상처에 붙여 주고 간 풀이 떠올랐어요. 할아버지는 나무도 팔지 않고 곧장 집으로 돌아와 뒷산으로 올라갔지요. 할아버지는 구렁이가 갖다주었던 약초를 찾아 한참 헤매고 다녔어요. 하지만 찾을 수가 없었지요.

‘다 비슷비슷하게 생겨서 찾을 수가 없네.’

약초를 찾다 지친 할아버지는 잠깐 쉬려고 나무 밑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죠? 그렇게 찾아도 보이지 않던 약초가 눈앞에 있는 거예요. 할아버지는 너무나 기뻐서 덩실덩실 어깨춤을 쳤어요.

‘이제 됐다. 이 약초를 상처에 붙이면 사또 나리 부인의 목숨을 구할 수 있을 거야.’

할아버지는 약초를 들고 사또를 찾아갔어요.

“사또 나리, 제가 마님의 병을 고쳐 보겠습니다.”

사또는 부인의 병을 고치겠다는 사람이 찾아왔다는 말에 기뻐했어요. 하지만 초라한 옷차림의 할아버지를 보고 크게 실망했지요.

“아니, 온 나라의 유명하다는 의원들도 못 고친 병을 어떻게 고친단 말이오.”



## 🌸 이야기 들려주기

---

“사또 나리, 저도 얼마 전에 큰 구렁이에게 물린 적이 있습니다. 다행히 이 풀을 상처에 붙이니 금방 나았습니다.”

사또는 보나 마나 할아버지도 부인의 병을 고치지 못할 것 같았어요. 하지만 금방이라도 죽을 것 같은 부인이 떠올라, 이렇게 말했지요.

“정 그렇다면 한번 병을 고쳐 보게나.”

할아버지는 사또 부인의 상처에 약초 잎을 정성껏 붙였어요. 그러자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짓무른 상처가 금방 낫더니 사또 부인이 언제 아팠냐는 듯이 벌떡 일어나 앉는 것이었지요.

“아니, 부인! 괜찮소?”

“네, 이제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부인의 말에 사또가 크게 기뻐하며, 명령을 내렸어요.

“여봐라, 이 노인에게 큰 상을 내리도록 하라.”

할아버지는 구렁이 덕분에 사또 부인의 병을 고쳐 주고 큰 상을 받게 되었어요. 많은 곡식과 재물을 받은 할아버지는 그 후로 오래오래 편안하게 살았습니다.



## 🌸 구연활동내용



### 한국 문화, 한국어 소개하기

여러분, 할머니가 들려준 이야기 잘 들었나요? 큰 홍수가 난 날, 할아버지는 떠내려가는 구렁이 한 마리를 구해 주었지요. 구렁이는 할아버지가 사또로부터 큰 상을 받게 해 주었어요. 할아버지는 어떻게 상을 받게 되었나요?

네, 사또 부인의 병을 고쳐 주었지요. 할아버지는 구렁이 덕분에 큰 상을 받아 편안하게 살게 되었어요. 구렁이가 은혜를 잊지 않고, 할아버지에게 은혜를 갚았죠. '은혜'는 누군가 고맙게 베풀어 주는 도움을 뜻해요. 상대방이 나에게 도움을 주었을 때는 '은혜를 입었다', 내가 그 은혜에 보답하여 도움을 되돌려 주었을 때는 '은혜를 갚았다'고 표현한답니다.

여러분, 구렁이는 할아버지에게 은혜를 갚고 싶었어요. 그래서 할아버지를 일부러 물고 이름 모를 풀을 주어서 사또 부인의 병을 고칠 수 있도록 했어요. 그 풀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래요. 약초지요. 약초는 산이나 들에 자라 약으로 쓰이는 풀을 말해요. 옛날에는 병원이나 약이 지금처럼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플 때는 산에서 자라는 약초를 따서, 차로 마시거나 상처에 붙여서 치료했지요. 배가 아플 때, 감기 들었을 때, 상처가 났을 때 각각 필요한 약초가 있었어요. 약초 이야기가 궁금한 친구들은 '도란도란 이야기보따리'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을 찾아보아요!



## 🌸 구연활동내용



### 이야기 정리하기

여러분, 할머니와 '은혜 깊은 구렁이' 이야기를 정리해 보아요.

옛날 마음씨 착한 할아버지가 홍수로 떠내려가는 구렁이를 구해 주었어요. 그런데 며칠 후, 구렁이는 오히려 할아버지를 물어 상처를 입혔지요. 하지만 다시 나타난 구렁이는 이름 모를 약초를 가져와 상처를 낫게 해 주었어요. 얼마 뒤, 사또 부인이 구렁이에게 물려 아주 아프게 되었어요. 할아버지는 자신을 고쳐 준 약초를 어렵게 찾아 부인의 병을 고쳐 주었지요. 그래서 할아버지는 큰 상을 받아 그 후로 편안하게 살았대요.

여러분, 처음엔 구렁이가 할아버지를 물어서 깜짝 놀랐죠? 그런데 알고 보니 정말 은혜를 갚으려 했던 거였지요.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고마운 마음이 들면, 작은 일이라도 마음을 담아 은혜를 갚는 친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 이야기 마치는 노래 부르기

그럼, 이야기 마치는 노래를 함께 부르면서 할머니랑 인사합시다. 이야기 마치는 노래 시작!

🎧 **하나 둘 셋 넷! 잘 들었어요. 우리 모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 **귀는 쫑긋 ✨ 눈은 반짝 정말 좋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시 만나요. 뽕뽕!** 🔊



### 인사 나누기

배꼽 손! 인사! 여러분, 다음에 '아름다운 이야기할머니' 또 만나요. 안녕!

